

수입 녹용 판치는 한약상가 국산녹용 소비자가 더싸고 약효 더있다.

오영채/농민신문 기자

이 내용은 본회의 자료협조로 농민신문사가 발행하는 여성지 「행복의 샘」 6월호에 게재된 것이다. <편집자 주>

옛날 이야기이다. 녹용이 아주 귀했던 시절, 궁중에서 녹용을 도둑맞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이때 어의(임금 전속 의사) 한 사람이 피를 내 『녹용을 먹으면 머리가 나빠진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그 이후 궁중에서 녹용도둑이 사라졌으나.

녹용은 우리나라 국민이 인삼과 함께 가장 많이 애용하는 고유의 보신재다. 한약에 쓰이는 중요한 재료 중에서도 첫번째로 손꼽히는 것이 녹용이다. 녹용은 허약, 기력 부족, 정력 부족 등에 매우 좋다는 인식 때문에 보약을 지을 경우 빠지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최근엔 보약으로서 뿐만 아니라 천식이나 조혈 또는 관절계통 치료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녹용은 사슴의 딱딱하지 않은 어린 뿔로, 만져보면 약간 물렁할 정도로 조직이 연하고 털이 끌고루 덮여 있는 수컷의 뿔을 말한다. 가을이 되면 물렁거리던 뿔이 단단하게 굳어지는데, 이 뿔이 녹용에 비해 효능이 떨어지는 녹각이다. 녹용과 함께 일반인들이 많이 찾는 녹혈은 녹용을 자를 때 흘러나오는 피를 말하며, 임상학적으로 녹용과 비슷한 약효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갓 자란 녹용은 표면에 부드러운 털이 있고 자라면서 가지가 생겨나 이 뿔 속에 피가 모여 든다.

한 달정도 되면 30cm 정도로 뿔이 자라고 2개월이 되면 가지가 두 개 정도 뻗는데 보통

60~70cm까지 자란다. 엘크 같은 사슴은 1m까지 자란다.

이때 잘라서 약용으로 써야 효능이 가장 좋다.

양기를 돋우는 데 최고

녹용은 어린이들에게는 허약 체질을 보해주고 치아 발육을 도와주며 전신 발육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여성에게는 불임증을 치료하고 대하를 고치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 노인에게는 관절 통증과 무기력, 현기증과 신기허약에 좋으며, 뼈와 힘줄을 굳게 하는 등 그 효과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뿔이 뿔나 해도 녹용은 양기를 보해주고 정력을 왕성하게 해주는 효과가 탁월하다. 정기를 발생하게 하여 혈액의 영양이 되고 성욕을 왕성하게 하며 조루증과 발기불능, 불감증을 치료하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다. 녹용을 이용해 술을 담근 것을 녹용주(鹿茸酒)라 하는데, 청주 1ℓ에 녹용 한 냙(37.5g) 정도와 산에서 나는 미를 가루낸 후 고운 베에 싸서 함께 넣고 완전히 밀폐시켜 1주일 정도 두었다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컵씩 마시면 정력 증진과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피부도 윤택해진다.

일반적으로 녹용은 상대(뿔의 위쪽)일수록, 녹각은 하대(뿔의 아래쪽)일수록 약효가

잘못 알려진 녹용 상식 네 가지

◇ 녹용을 먹으면 머리가 나빠진다?

항간에 녹용을 많이 먹으면 머리가 나빠진다는 속설이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다만 열이 심할 때나 소화불량시에는 복용을 금해야 한다. 또한 처방시 보통 10가지 인삼의 한약재가 첨가되는데 이때 어린이는 스테미나보다는 기억력 증진 등 뇌세포 발육에 중점을 뒀 처방한다.

◇ 나이든 사람들이 많이 먹을 경우 죽을때 고생한다?

녹용은 사람의 몸을 보해 신체의 저항력과 활력을 증진시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건강을 위해 복용한 녹용으로 임종이 힘들어진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속설이다.

◇ 여름에 녹용을 먹으면 땀으로 영양성분이 빠져나가 효력이 없다?

그렇지 않다. 녹용은 여름에 기운이 허할때 먹어야 가을에 식욕이 돋고 겨울철 감기에도 견딜 수 있다. 여름에 보신탕을 먹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고혈압 환자에게 녹용은 좋지 않다?

녹용에는 혈관에 탄력을 주는 성분이 있어 처방에 따라 혈압을 낮출 수 있다. 특히 신성고혈압(腎性高血壓)에는 특효를 나타내기도 한다.

좋다. 녹용상태에서는 약효성분이 위에 있다가 녹각이 되면서 약효 성분이 아래로 모이기 때문이다.

녹용을 의약품으로 처음 사용한 것은 기원전 221~207년 로마의 킹 왕조 때부터라고 전해진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기원후 200년경 로마인 플라니우스 세컨드스라는 사람이 사슴뿔에 있는 약성분으로 간질 치료에 이용했다는 기록이 처음이다. 또 16세기경의 서양 의서에는 사슴뿔 분말을 이용해 대머리, 여드름, 치통 및 뱀에 물린 상처를 치료한다고 기록돼 있다.

동양에서는 약 1천8백년 전에 중국에서 편찬된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이라는 약물서에 녹용의 효능에 대해 처음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남산에는 사슴이 많은데 수컷 한 마

리가 암컷 수백마리를 상대한다」 「녹용은 대하, 하열, 간질을 치료한다. 또한 기운을 돋우고 의지를 강하게 하며 이빨을 빨리 나오게 한다」며 녹용의 효능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후의 본초서에도 「녹용은 신장과 간장을 보해주고 기운과 피를 돋우며 양기를 튼튼하게 하고 성장을 촉진시킨다. 또 지속적으로 노화를 막고 근육을 튼튼히 하며 피부질환에도 효과가 뚜렷하다」고 적고 있다.

한약재로 쓰이는 국산녹용은 겨우 1%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녹용과 사슴을 영약(靈藥)으로 여겨 이를 채취하기 위해 양록장(養鹿場)을 설치, 운영했다. 조선 중엽 홍만선(1643~1715)이 지은 산림경제에 처음으로 사슴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으며, 여기에 사슴과 노루를 순화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조선 왕실에서는 왕실에 소요되는 녹용 조달을 위해 왕실 직영의 사육장을 금강산과 경남 통영에 설치, 사슴을 사육해 녹용을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국내에서 연간 소비되는 생녹용은 70여만kg이다. 이 중에 국내산은 15만6천kg(건녹용으로는 4만5천kg)가량으로 전체 녹용 소비량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뉴질랜드와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수입한 녹용에 의지하고 있다. 그나마 한약방 등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수입 녹용만 사용하고 있어 국산 녹용 생산과 관계없이 녹용 수입량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70년대 3만kg에 그쳤던 녹용 수입량은 80년대 들어서 30여만kg, 90년대에는 35만~53만kg으로 급증, 세계 녹용 생산량의 80%를 수입하는 녹용 최대 소비국이 되었다. 녹각도 매년 1백만kg을 들여오고 있는데, 녹용류 수입으로 연간 5천만~6천만 달러의 외화를 유출하고 있다.

녹용의 수입 급증으로 국산 녹용은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산 녹용은 현재 대부분이 건강식품으로 유통되고, 한약재로는 전체

녹용·녹혈·녹중탕은 이렇게 드세요

사슴은 어느 부위도 버릴 것이 없는 최고의 보약이자 치료제이다. 녹용·녹혈은 물론 사슴의 거의 모든 부위를 이용한 녹중탕도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 녹용과 녹혈의 정확한 차이는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으나, 거의 유사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 한의사의 진찰을 받아 증상에 맞도록 녹용과 녹혈을 적절히 사용하면 효과가 더욱 좋다.

◇**녹용** : 생녹용 기준으로 성인은 5~6냥(2백~2백50g), 어린이는 성인의 절반을 목 모양으로 달여 한약에 적당량을 타서 복용한다. 또는 생녹용 1인분과 인삼 30g, 대추 20g, 생강 20g을 물 6ℓ에 넣고 2ℓ가 되게 달여 냉장고에 보관해 아침, 저녁으로 1컵씩 데워서 복용한다.

◇**녹혈** : 녹용을 자를 때 사슴 농장을 방문해 성인 1인당 1회 2백ml를 복용하는데, 증상에 따라 2주간격으로 3~4회 복용하면 더욱 효과가 좋다.

◇**녹중탕** : 따뜻한 물에 녹중탕 1봉을 데워 아침, 저녁 공복에 복용한다. 처음 1주일 정도는 1일 1봉씩 복용하다 거부반응이 없으면 성인 1일 2~3회, 어린이 1~2회 복용하며, 기간은 1~2개월이 적당하다.

생산량의 1%만이 유통되고 있는 형편이다. 국산녹용을 건강식품으로만 유통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국내 사슴 사육 농가들은 판로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약 관련 업계에서는 국내 사슴 사육 환경과 가격 등을 운운하며 품질을 불신하고 구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산 녹용에 대한 불신이라기 보다는 이익을 많이 남겨주는 수입 녹용을 계속 취급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한국양록협회 이덕신 회장의 말이다.

실제로 국내 사슴 사육 환경등을 고려할 때 국산 녹용이 품질면에서 수입 녹용보다 우수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우리 나라는 사슴 사육 환경의 최저적이라 할 수 있다. 사계절이 분명하고 북위 35~45도의 온대지방인 우리 나라는 사슴이 가장 잘 자랄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반면 녹용의 주요 수출국

인 뉴질랜드는 여름이 길고 봄과 가을이 짧은 아열대 지방이며, 러시아는 추운 극한지방이다. 사료도 국내에서는 떡갈나무잎, 상수리나무잎, 참나무잎, 율나무 등 관엽수를 이용하고 있어 목초와 귀리, 연맥만을 먹여 생산한 수입 녹용과는 질적으로 비교가 안되는 아주 우수한 상품이라는 것이 양록 관계자들의 말이다.

또 수입 녹용은 건조 과정을 거치는 동안 녹용 고유의 성분이 파괴된 건녹용이지만, 국산 녹용은 주요 성분이 그대로 보존된 생녹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예로부터 산삼은 말리지 않고 생것으로만 이용했는데 말린 산삼은 이미 산삼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다.

가격면에서도 대다수 소비자들은 국산 녹용이 수입 녹용에 비해서 비싸게 유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양록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뉴질랜드나 러시아, 미국 생녹용의 수입 가격은 다섯 냥당(보통 보약 한 재에 들어가는 양) 1만~1만5천원(1달러에 9백원이었을 때의 가격이다)이지만 국내 유통 과정에서 도매 3만~5만원, 소비자 가격 10만~15만 원으로 폭등을 한다. 반면 국산 녹용은 생산자인 농가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하면 약 10만원에 살 수 있다.

국산 녹용은 현재 단순 세척, 절단, 건조만 하면 농산물 가공품으로 보며, 한약제조업소에서 규격화해서 한방의료기관에 포장판매할 경우 의약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보약재로 녹용을 이용할 경우 한국양록협회가 직영하는 국산녹용중앙직판장이나 농협과 축협에서 운영하는 판매장, 양록농가들이 조직해 만든 영농조합들의 판매장, 그리고 농가 등에서 생녹용을 직접 구입, 한약을 조제하면 한 재당 10만~15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현재 한약업소에서 녹용이 가미된 보약 한 재를 지을 경우 보통 30만~35만원 들지만 국산 녹용을 사가지고 한약업소에서 보약을 지으면 20만원안팎에 조제할 수 있다.*